

인권정보자료실
CPh1.17

민족미술운동자료집 1

1980-1987

군사독재정권 미술탄압사례

민족미술운동자료집 1 군사독재정권 미술탄압사례 1980-1987

민
인권정보자료실
CPh1.17

민족미술협의회

B1-6

민족미술운동자료집 1

군사독재정권 미술탄압사례

1980-1987



민족미술협의회

차례

책머리에 4

1980~84

「현실과 발언」 창립전 전시취소 8
서울현대미술제 최민화의 「시민1」 철회 12
김봉준의 '농민만화집' 압수 13
당국이 선정한 불온작가 20
최민화의 만화 「세 오랑캐」 압류 22

1985

홍성담의 판화 「대동세상」 탈취 33
한국미술 '20대의 힘전' 탄압 34
우란문제 행사탄압, 걸개그림 탈취 42
'민족미술 열두마당' 압수 43

1986

'문제작가전' - 신학철 작품철회 56
만화 '강순이' 작가 이은홍 구속 57
신촌도시벽화 '통일과 일하는 사람들' 파괴 59
정릉벽화 '상생도' 파괴 65
성균관대학교 전시작품 탈취 68
안성벽화 파괴 69

1987

「반고문전」 전시탄압 71
호헌철폐 미술인 237인 선언 78
최민화의 이한열 열사 부활도 탈취 80
「통일전」 출판작가에 국가보안법적용 83
'평등을 향하여' 탈취 85
만화정신지 사건, 손기환 구속 87
송만규 걸개그림 탈취 92
건국대 10.28항쟁 기념탑 철회 93
6월민주항쟁 기념엽서 압수 96
「반쪽이 만화」 탈취 98

민주·문화운동 탄압일지(1980~87) 102
미술창작과 전시 탄압일지(1980~87) 102

책머리에

젊은 세대의 자각에 의하여 80년대 초두에 일기 시작한 새로운 미술운동은 세찬 물결로 작용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러 갈래에서 싹튼 이런 움직임은 부침을 거듭하면서 80년대 중반에 민족미술운동으로 귀결되면서 실천적 이념의 모색이 뚜렷해지고, 아울러 활발한 개인, 집단의 창작과 전시 및 행사를 통하여 운동의 토대와 동력을 심화, 확대하고 있다. 오늘의 민족미술은 분단현실에서 파생되고 있는 민족사적인 고난과 절곡을 타파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민족통일을 지향하며, 그것의 주된 관심은 어둠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땅의 주인인 민중의 삶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진실과 도덕과 양심에 대해 깊이 생각한 이땅의 미술인이려면 누구나 시대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술적 책무를 다할 일이 분명한 것이다.

이 자료집은 80년초에서 87년까지 군사정권에 의해 탄압받은 미술활동을 년대별로 정리하여 그 사건경위를 밝히고 관련 작품사진을 수록한 것이다. 일부 제도권 미술인에 의한 모함과 당국의 억지조작으로 인해 우리가 벌여온 미술운동의 실체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세상에 알려져 왔는바, 그러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다시말해 당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탈취당하고 훼손된 작품과 전시탄압사례를 한자리에 모아봄으로써 민족미술의 정당한 가치를 여러분께 알리고 평가받으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당해은 탄압사례의 유형을 대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공부 소속의 관리와 제도권 미술인사가 공모, 작당하여 협박과 회유를 통하여 전시를 중단시키거나 작품을 보관하는 형식으로 압류하는 사례.

둘째, 적법한 절차없이 용공작경의 혐의를 씌워 공권력을 동원, 전시작품을 훼손, 파괴, 압수하고 작가를 연행, 구류, 구속기소하는 사례.

셋째, 미술운동과 관련된 서적의 인쇄를 중단시키거나 탈취하고, 출판된 서적을 압수, 판매금지시키는 사례.

넷째, 이른바 불온작가 명단을 제도권미술인과 문공부관리들이 공모, 작성하여 작가의 동태를 감시하고 소속 단체에서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작가에게 떠넘기는 사례.

다섯째, 정보과 형사를 전담시켜 전시작품의 내용을 늘 파악하게 하고 작가들의 활동상황을 감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사례.

이러한 사례는 바로 올바른 방향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군사권력의 정권유지를 위한 반역사적, 반민중적인 예술정책에 기인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 자료집에 수록된 대다수의 작품은 파괴, 훼손되어 그 흔적조차 없어진 경우도 있고 강탈당하여 그것의 소재조차 파악안된 것도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각종 불법적인 탄압사례에 대해 관계당국에서 아직까지 단 한번도 공식해명이나 사과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겸손하게 요구한다. 관계당국은 그동안 탈취해간 작품을 반환하고 공식사과하여 작가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것. 파괴, 훼손한 작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해 줄것, 그리고 미술탄압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이원홍 전문공부장관 등 관련인사를 문책할 것, 특히 관계당국의 총복으로 일해 온 일부 제도권미술인은 인간의 양심으로 돌아가 미술계에서 떠날 것을 권유한다.

끝으로 이 자료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탄압사례가 누락되었는바, 이는 탈취당하여 사진자료가 없는 작품을 신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집, 정리되는 대로 보완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민족미술운동에 관한 자료집을 펴낼 것임을 약속하며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기대한다.

1980년 1월 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걸쳐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와 화재, 교통사고, 범죄사건, 기타 각종 사고의 발생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원인과 예방대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 게재한다.

본 보고서는, 1980년 1월 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걸쳐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와 화재, 교통사고, 범죄사건, 기타 각종 사고의 발생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원인과 예방대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 게재한다.

본 보고서는, 1980년 1월 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걸쳐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와 화재, 교통사고, 범죄사건, 기타 각종 사고의 발생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원인과 예방대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 게재한다.





임옥상 「신문」

‘현실과 발언’ 창립전 전시취소

때 : 1980년 10월 17일-23일

곳 :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현실이란 무엇인가? 미술가에 있어서 현실은 예술 내부적 수렴으로 끝나는가, 혹은 예술 외부적 충전의 절실함으로 확대되는가?”

“현실을 어떻게 보고 느끼는가?”, “발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발언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

이같은 현실과 미술의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작가들이 모여서 「현실과 발언」을 창립했다. 창립전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열었다. 그러나 미술회관측은 전시작품을 특정한 이

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관취소를 통보했다. 전시회 운영위원회(권옥연 외)를 긴급소집하여 전시취소를 결정하였다고 통보하고, 실내전기를 끊어버리고, 관람객 출입을 금지시켰다. 이에 출품작가들이 항의하면서 촛불전시를 전시개막일에 강행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미술탄압이 미술계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례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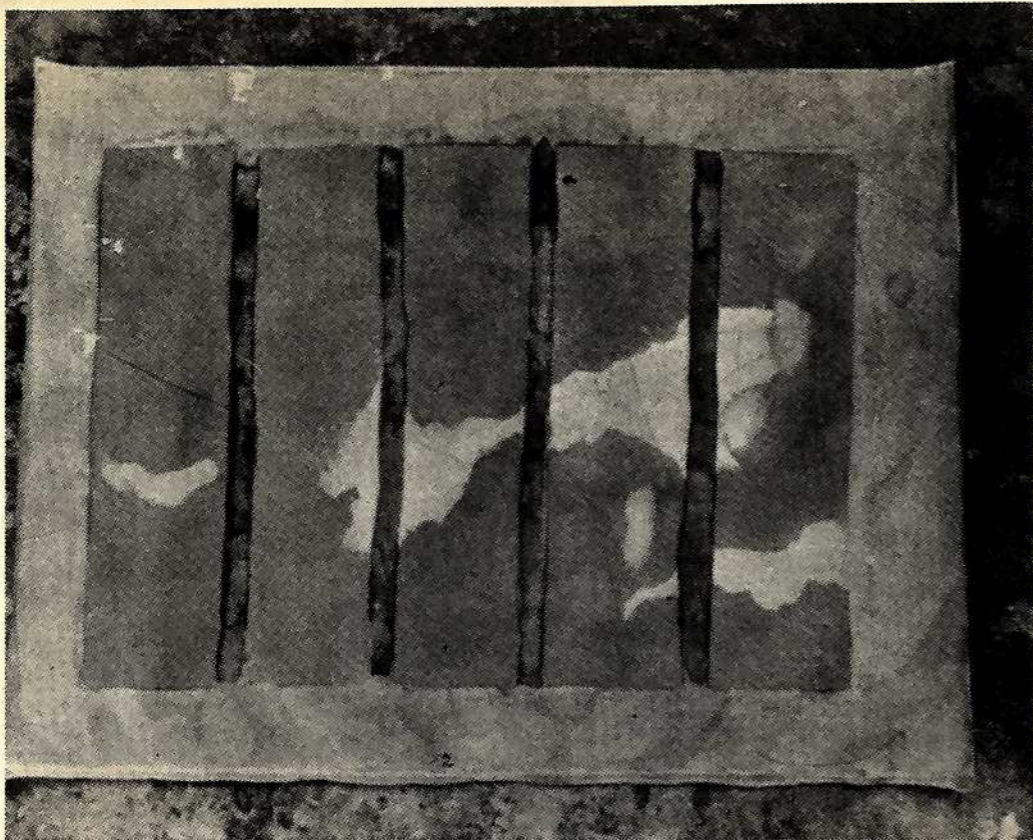
(참가작가 : 김정현, 김용태, 김건희, 노원희, 민정기, 백수남, 성완경, 손장섭, 심정수, 신경호, 오윤, 원동석, 임옥상, 윤범모, 주재환, 최민 등 16명)



오윤 「안전모」



김정현 「툼보이와 함께 행진하는…」



신경호 「낮이라도 있고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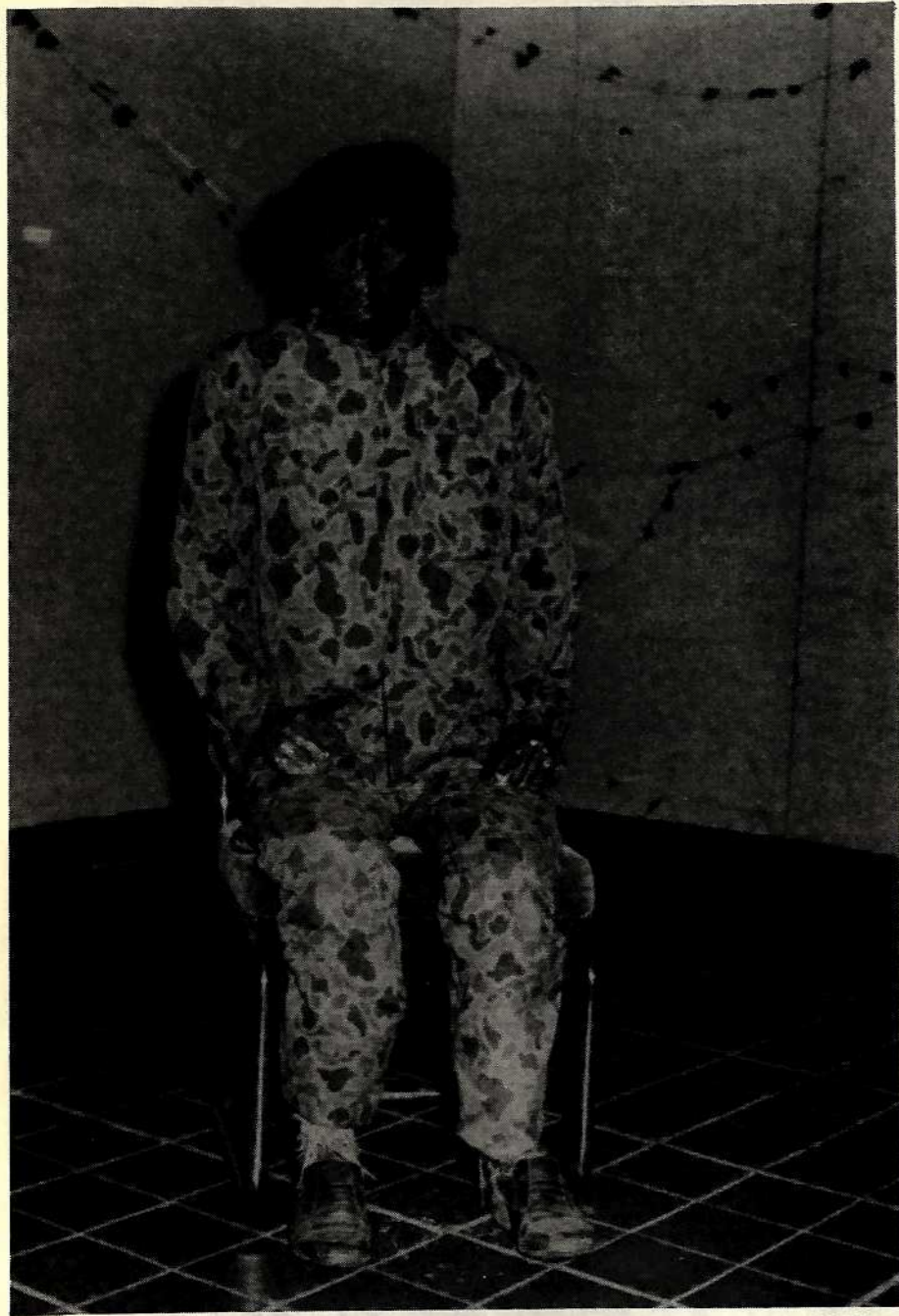
손장섭 「기지촌 인상」



심정수 「오늘도 땅을 밟고 하늘을 본다」



민정기 「공해」



최민화 「시민1」

서울 현대미술제 - 최민화의 「시민」철거

때 : 1980년 7월 23일
 곳 :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1980년 7월 23일부터 동숭동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개최된 한국미술협회주최 「서울현대미술제」에 초대 출품된 최민화(본명 최철환)의 입체작품(석고, 천, 염료) 「시민-I」이 개막일 오

전 당국에 의하여 강제철거되었다. 이 작품은 광주시민항쟁의 비극성을 묘사한 것이었다. 주최측은 아무런 해명과 사과도 없었다. 이 사건은 당시의 정치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는 제도권 미술행사의 보수적 일면을 보여준 사례이다.

을어버린 순이 아버지



김봉준의 '농민만화집' 압수

때 : 1982년
 곳 : 기독교농민회 사무실
 1982년 기독교농민회에서 발간된 「농사꾼 타령」(김봉준)이 배포 직전 당국에 의해 기독교농민회 사무실에서 압수되었다. 당시 농민회 사무

국장은 이 사태에 항의하였으나 구류처분을 받았고, 농민만화집은 뒤에 일부 복사되어 배포되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양특적자' 등 당시 수탈당하고 있는 농민의 고난상을 묘사한 것이었다.









임옥상 「땅」

당국이 선정한 불온작가-김경인, 임옥상, 신경호, 홍성담, 강광

때 : 1982~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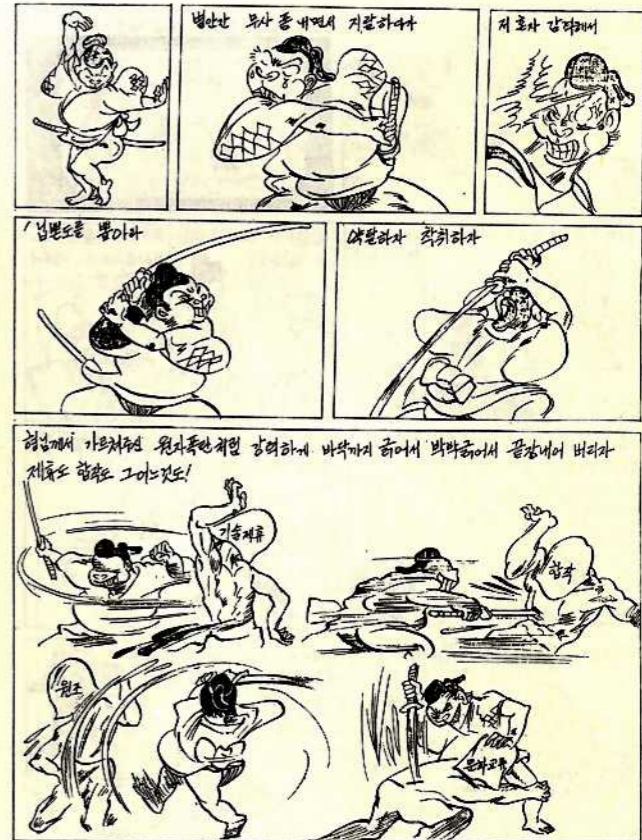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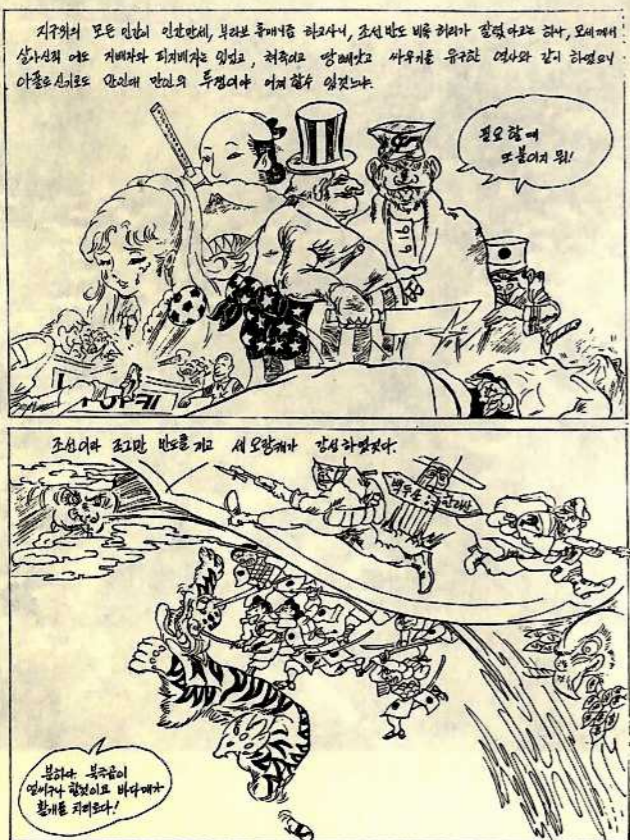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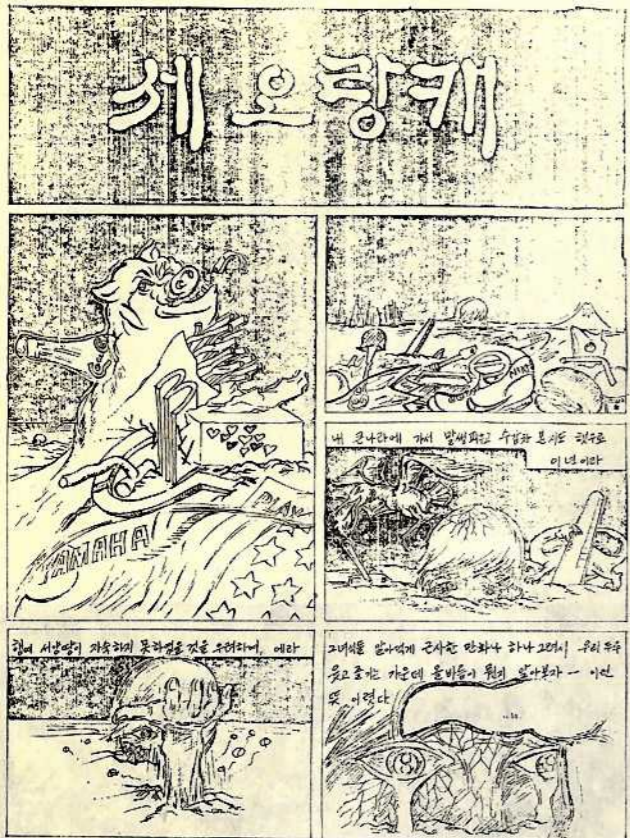
1982년 문화공보부 예술국 관리들(국장 김광식, 예술 1과장 김기수, 계장 김진무, 직원 유재기)과 현대미술관장 이경성, 동 전문위원 오광수 등은 이른바 미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를 작성, 그 중에서 김경인, 임옥상, 신경호, 강광, 홍성담 등을 불온작가로 규정, 협박과 회유로 이들의 작품을 압류하는 등 갖가지 규제를 자행하였다. 작품 압류의 사유는 그 이유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었는 바 '붉은색이 많고 어둡다', '저항적인 냄새가 난다' 등 다분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처사였다.

이들 작가들은 각종 전시회 초대가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또는 재직중인 대학에 문교부장관 명의의 경고장(소속 미술단체 탈퇴중용 등)을 보내

억지로 시말서를 쓰게했고, 그로 인해 승진이 누락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이들 작가들이 속해 있던 미술인 모임 '제3그룹', '12월전' 등도 불온시되어 전시장 대여를 할 수 없는 등의 수난을 겪어왔다.

최근의 사례를 예로 들면 1987년 7월 8일 KBS TV의 미술관에 김경인의 작품세계가 선정되어 방영되기로 결정되었으나, 제작진은 상부의 지시로 인해 돌연 그 계획을 취소당하고 말았다. 이처럼 해괴한 불온작가 선정은 당시의 무지몽매한 관료들과 기생충적인 제도권미술인이 공모하여 연출해 낸 작태였던 것이다. 최근에 이들작가들의 항의로 그동안 억류당했던 작품들을 되찾았지만 관계당국은 한마디의 공식사과나 해명이 없었음을 부기해 둔다.







9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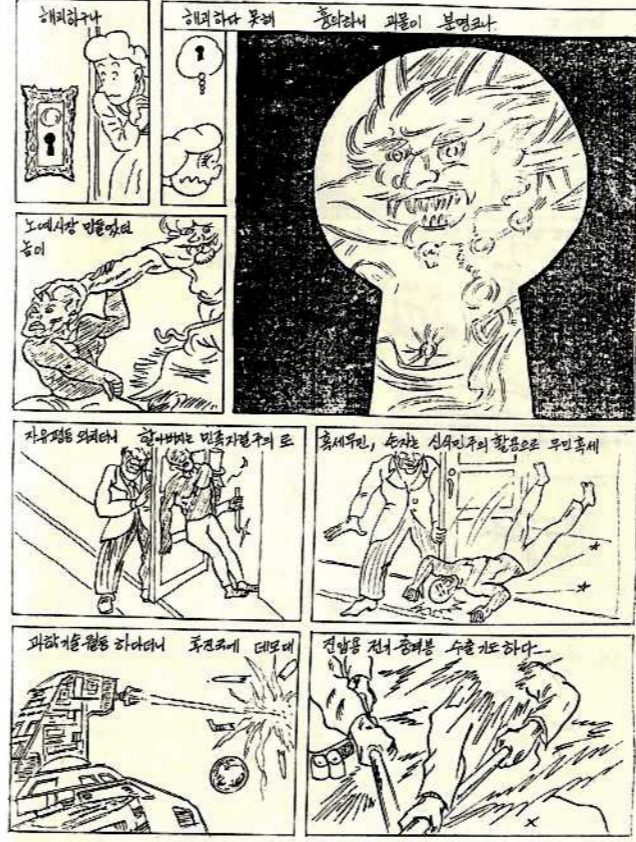
12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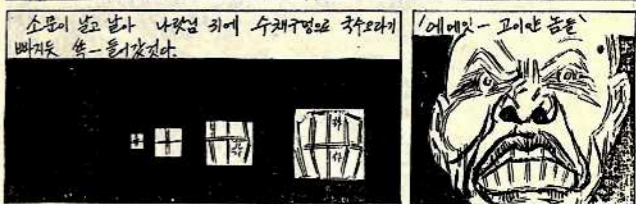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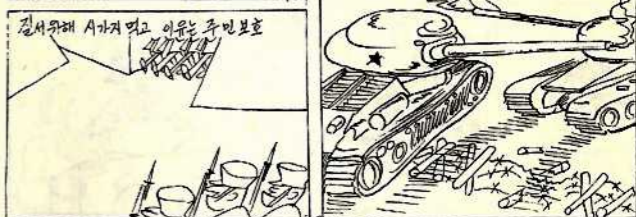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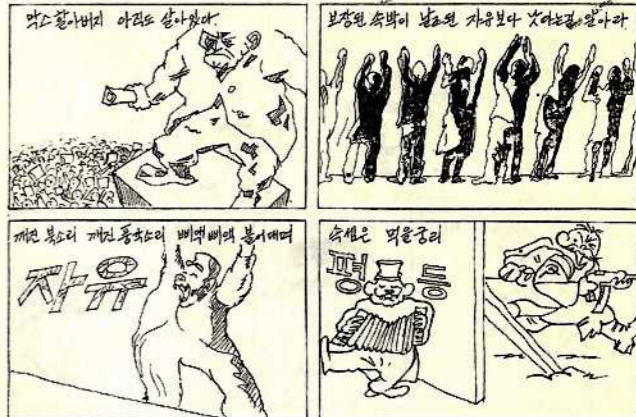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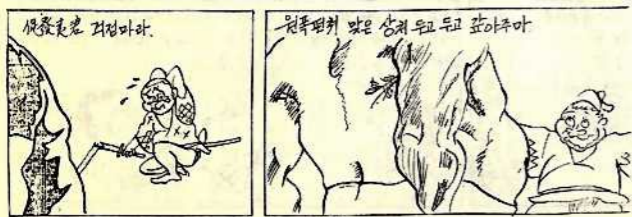
15



16

체포하고 인쇄과정을 지켜보던 화가 유연복, 박진화를 연행, 마포경찰서에서 3박4일간 국가보안법 혐의를 씌워

조사한 후 석방 하였으나 작품은 전량이 압류당하였다. 이 작품은 의세의 침탈과 중속경제의 문제점 및 소위





33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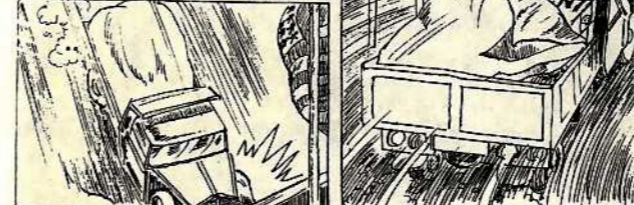
34



36



37



39



38



이런 등의 무한 이야기
세계를 지나도록 민중의 아나고 인제 화하여 길이 길이 전해보고자.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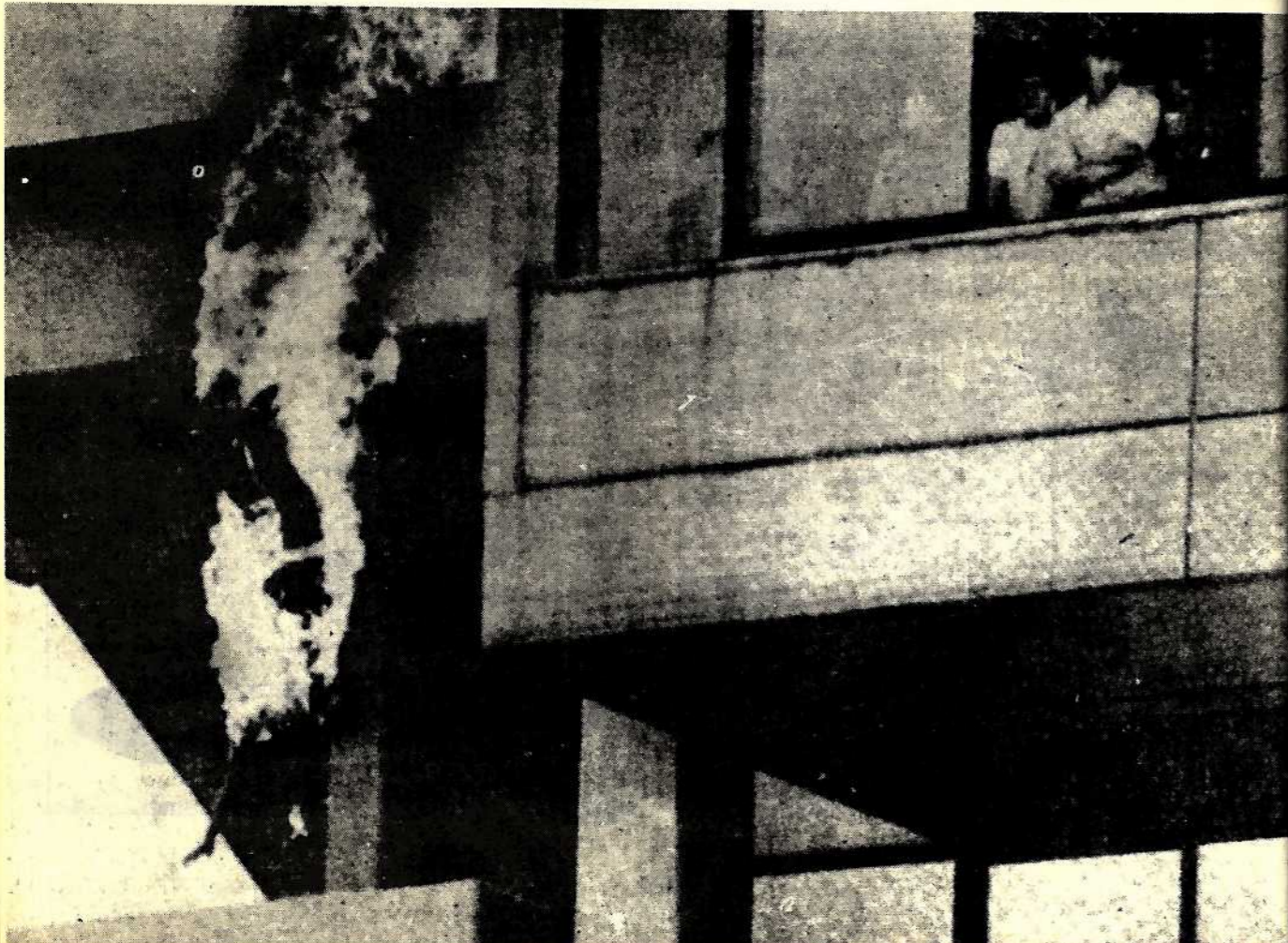
40

30

31

1985

무엇이
이 학생들을
분신으로 내몰고 있는가?
서울대학교 이동수군은
“미제축출”을 외치며
학생회관에서 분신투신하였다.



홍성담 「대동세상」

홍성담의 판화, '대동세상' 탈취

때 : 1985년 5월

1985년 5월 홍성담의 판화작품 '대동세상'이 인쇄도중 경찰에 의해 무려, 2,000여점이 불법 탈취되었다. 판화 '대동세상'은 혁명광주의 해방구로서의 환희와 기쁨을 그린 작품으로 광주시민에 의한 광주항쟁이 우리가 지향하는 '함께 누리는' 세상이라는 것을 사실적 묘사로 강렬하게 제시한 작품이었다.

이에 대한 당국의 탄압은 광주항쟁에 대한 독재정권의 왜곡일 뿐만이 아니라 민중의 새 세상에 대한 염원을 표현한 미술작품이 가진 잠재된 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압수된 작품과 내용

(경찰분석)

작가	작품명	내용	구분
박영	올비극의 역사 80. 5 光州	피빛 하늘아래 널려있는 시시묘사	화
孫基煥	타타타타!	평화로운 마을상공에서 훈련중인 공수부대원 묘사	"
張명규	도 못하나?	경찰의 과잉단속 풍자	"
박불똥	경찰의 보호감시 아래 서울木洞주민들이 이른 아침 일터로 향하다 1980. 5. 17生	경찰의 감시받는 木洞주민 묘사	클라지
金祐善	이불을 깨매면서	성조기 얼굴 모습한 입속으로 나신들이 먹혀들어가는 모습 묘사	"
(두령同人회장)	솔의기 열사 身上圖	정부요인·미대통령·金大中·金泳三씨모습과 중앙청으로 돌진하는 군인을 묘사	"
金祐善	구속된 내친우를 생각하며	근로자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함을 표현	詩
두령同人공동작(張振榮·金祐善·金周榮 등)	노동자의 힘	근로자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함을 표현	詩
두령同人공동작	대우어패럴해산	대우어패럴해산	詩
두령同人공동작	연대투쟁	연대투쟁을 지지하는 성명발표모습	"
두령同人공동작	이렇게 즐기롭게	민주노조탄압중지등을 외치며 시위하는 大우어패럴노조	"
두령同人공동작	당신은 당국의 노동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의 어용화등을 연상하는 여성근로자 묘사	"
두령同人공동작	강제해산	기동타격대에 의해 강제해산되는 근로자의 모습	"
두령同人공동작	우리는 뭉쳐야 된다	연대투쟁에 동참토록 부르짖는 노동자들의 모습	"
두령同人공동작	큰힘 주는 조합	근로자들앞에 노조가입을 선동하는 수기를 기록	"
두령同人공동작	우리를 밥을 뱉지 마세요	해고된 여공의 애처로운 모습 형상화	"
두령同人공동작	우리 아버지는 공장에서 하루종일 일한다	판자촌이기가 공장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는모습 형상화	"
두령同人공동작	차종욱 신상도	운전기사차종욱씨가 깃발을 들고있는 모습	"
두령同人공동작	大우자동차 민주노조	민주노조의 힘찬 발전에대한 희망을 표현	"
두령同人공동작	꽃잎처럼	머리채잡고 끈뭇 휘부르며 청계 피복노조 해산하는 경찰묘사	"
두령同人공동작	산자여 파르라(勞動日記中)	목발 치켜들고 청계피복노조 탄압중지 외치는근로자의 모습	"
두령同人공동작	불온서적(勞動日記中)	비인간적 대우가 서러워 투쟁서적들고 망향에 젖은 노동자모습	"
두령同人공동작	사람	사람의 의미를 슬픔과 고통을 딛고선 노동자의 투쟁을 통한 승리로 묘사한 차노해의 詩 인용	詩
두령同人공동작	바람이 불더라	바람을 정부당국, 물을 노동자로 비유해 불사태(노동자의 투쟁)가 바람이 휘몰아치는 까닭이라고한 차노해의 詩 인용	"

중앙일보 사회면기사(7. 24)

한국미술 '20대의 힘 전' 탄압

때 : 1985년 7월 13일-22일

곳 : 아람미술관

대외적으로 민중·민족미술의 질적 확산과 이의 정립, 그리고 미술 문화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20대 화가들의 자리확인을 위하여 1985년 7월 13일부터 아람미술관에서 「20대 힘전」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1985년 7월 20일 당시 이원홍 문공부장관의 경주 발언 직후 경찰당국의 폭력적인 미술탄압이 자행되었다. 7월 20일 종로경찰서 소속형사 5명은 아람미술관에서 전시중인 「20대의 힘」전 전시장에 난입하여 36점의 작품을 강제철거, 향의하는 작가들에게 폭언을 하면서 작품훼손과 사진촬영을 한 사태가 발생했다. 7월 21일에는 미술관측에 압력을 넣어 건물 전체를 폐쇄시키고 향의하는 작가 19명을 강제연행하고, 26

점의 작품을 압수하였다. 이 사건은 한국미술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발생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커다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때 구속된 작가는 손기환(서울미술공동체 기획실장), 박진화(서미공 연구주무), 박불똥(서미공 회원), 김우선(두령대표) 장진영, 김준호(이상 두령 회원) 등이었다.

출품작가 : 강덕창, 고경훈, 김경주, 김기현, 김낙일, 김방죽, 김연경, 김우선, 김윤주, 김재홍, 김종억, 김준권, 김진철, 김진수, 문샘, 박불똥, 박영울, 박진화, 손기환, 송준재, 송진현, 유연복, 이강용, 이기정, 이명준, 이장복, 이준석, 장경철, 장명구, 장효진, 전병근, 정희승, 장진영, 최정현, 최찬식 등 3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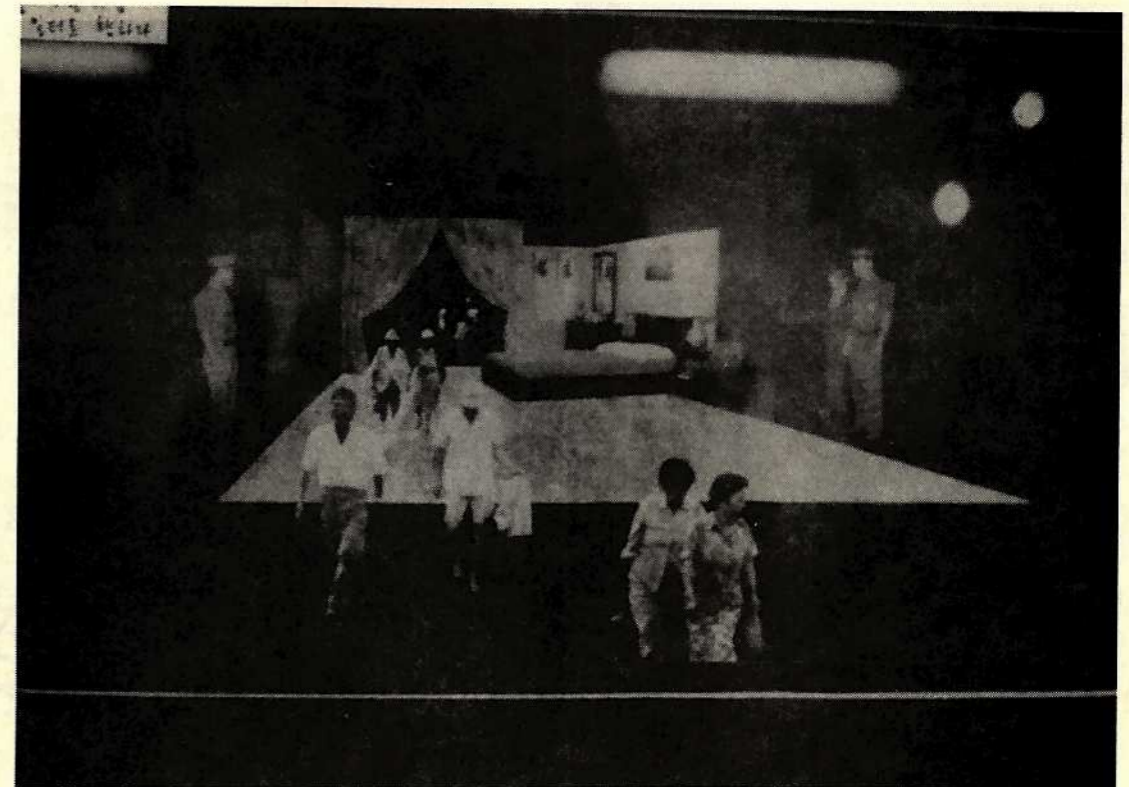


우리들의 밥을 뱉지 마세요



20일 아람 文化會館(慶雲洞)에서 전시중인 「힘展」에서 경찰이 떼어낸 작품들과 이 전시회에서 압수된 작품 『우리들의 밥을 뱉지마세요』. 경찰은 이것이 예술의 범주에도 못미치는 선동포스터라고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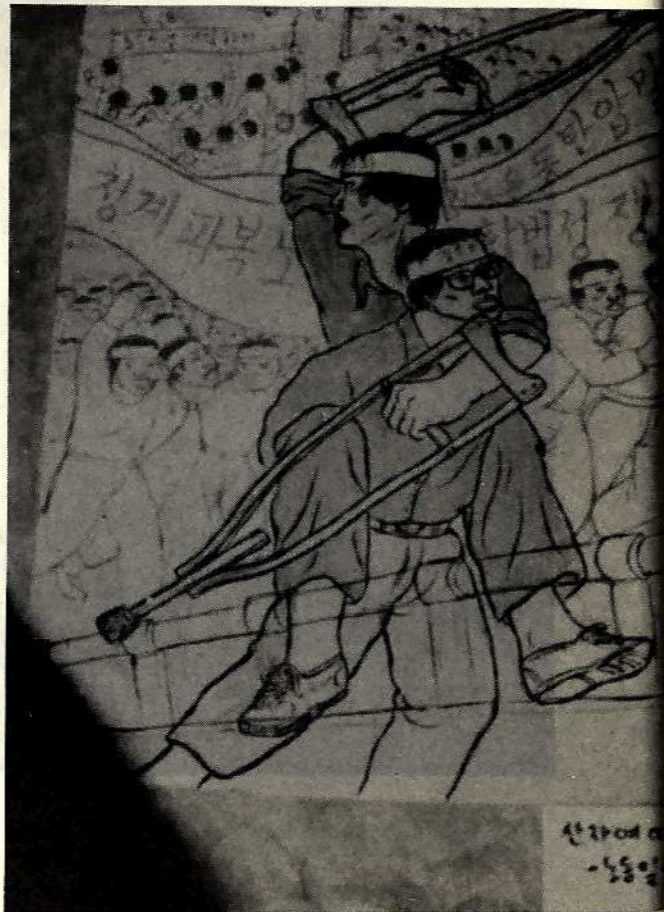
중앙일보('86. 8. 4)



박불똥 「일터로 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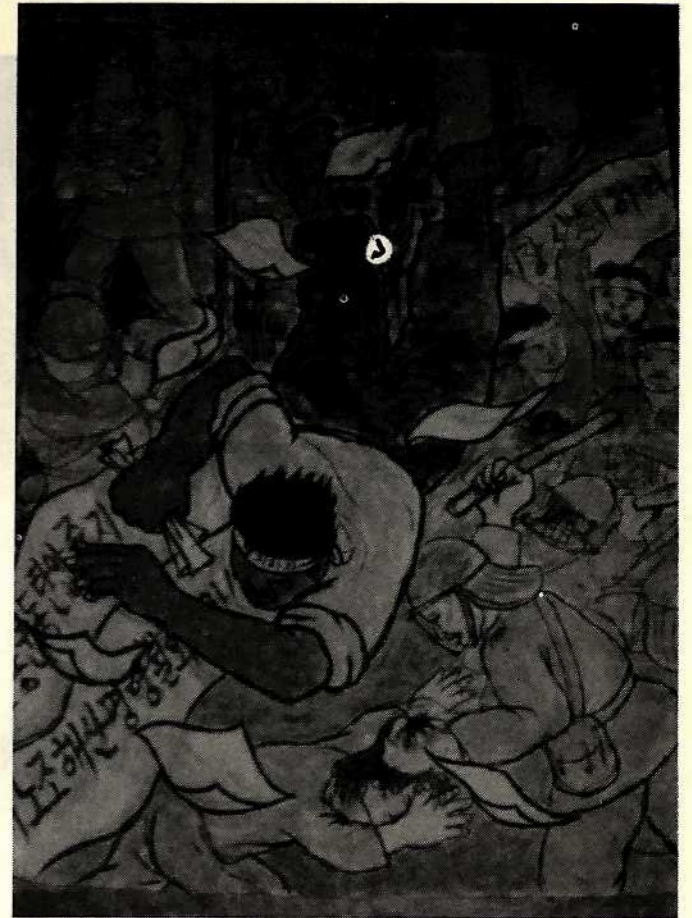
두령 「노동3권 보장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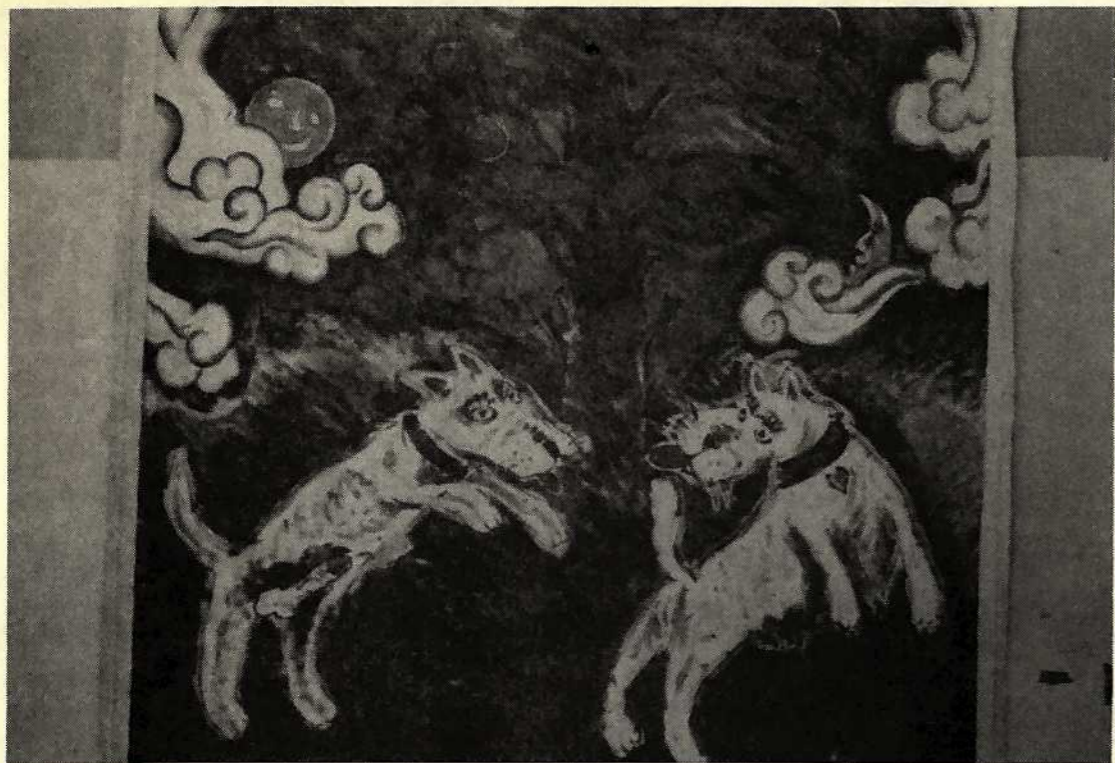
두령 「산자여 따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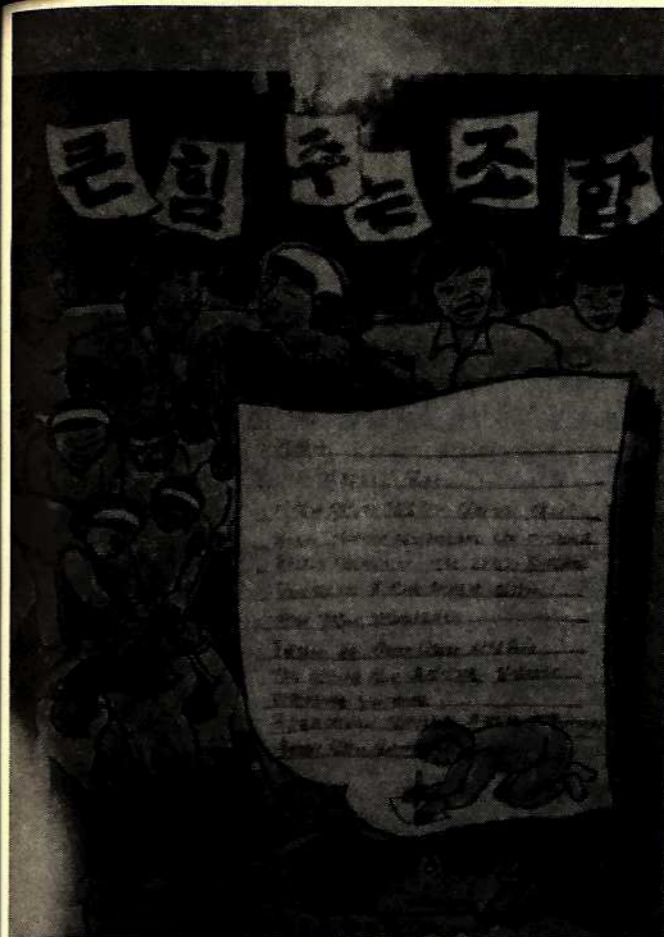
손기환 「타타타타타」



두령 「꽃잎처럼」



장명규 「음양의 도를 아시나요?」



두령 「큰힘주는 조합」



박영울 「어찌 살아야 합니까?」



두령 「당신은 당국의 노동정책을 어떻게 일각하십니까?」

당신은 당국의 노동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국의 미술전시 탄압에 대한 미술인의 견해

지난 7월 20일 아람문화회관에서 전시중이던 「1985년 한국 미술 20대의 힘」전이 경찰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아래 전시회를 중단시킨 일련의 사태는 우리 미술계에 일지기 없었던 경악스런 대사건이었다. 경찰은 30여 점을 압수했고, 전시장을 폐쇄시키고, 세미나 개최를 제지했으며, 이런 불법적인 처사에 항의하는 작가 19명을 연행했고 그중 5명은 유언비어 유포혐의라는 죄목으로 모두 구류 7일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우리 미술인들은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경찰이 민주사회의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마구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예술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이처럼 무참히 유린된 사실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사태의 급속한 추이과정을 보면 이원홍 문공부장관의 이른바 「경주발언」이 있는 직후 일어났고, 경찰은 정당한 수사절차가 있기도 전에 용공성과 좌경화를 운운하고 대학의 삼민주주의의 깊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발표하였고 각 텔레비전과 일부 신문은 이를 과장하여 왜곡 보도함으로써 국민과 미술인 사이를 이간시키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일부 제도언론의 저질스럽고 악의에 찬 편파적인 보도가 저지른 막대한 피해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양심적인 언론의 공정성에 입각한 보도에 경의를 품기도 하였다.

돌이켜 보면 이런 탄압은 미술계에 대한 몇차례에 걸쳐 시도된 음성적인 탄압이 이제 본격적으로 양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뿌리칠 수 없게 한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젊은 미술인들이 일으킨 새로운 미술운동은 그야말로 미술 민주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고 이땅에 참된 민족미술을 실현하려는 노력이었다. 기존미술의 유미주의 미술이나 실험정신이라는 명분아래 난해한 형식 미술을 추구하는 현대주의자들의 이기적인 창작방법을 비판하고, 인간의 삶 전체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민족의 생동하는 미술문화를 창조하겠다는 의욕이 80년대의 새로운 미술이 일으킨 운동이었으며 그것은 이 시대의 필연적이고 당연한 흐름이었다. 그리하여 민족미술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는 작가들의 출현 및 민중과의 소통이 회복되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으로부터 외면당한 제도권 미술인 일부와 당국의 시각에서는 이런 미술운동을 '미술을 사회운동과 동일시'한다거나 '순수의 영역을 벗어난 이단'이라는 식으로 위협시하고 불온시 하면서 음성적인 탄압과 물리적인 제재를 서슴치 않았던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왔다.

열거하자면 1980년 10월 「현실과 발언」 창립전이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의 강압에 의해 대판이 취소당하여 이 전시회는 촛불을 켜 단 몇 시간으로 끝나버리고, 미술회관 운영위원 3명이 모두 사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미술계에 대한 탄압의 첫 사건이었다. 1982년 겨울에는 「광주 2000년」전을 계기로, 당국의 사찰기관들은 미술계의 움직임에 대한 내사를 시작하여 몇몇 작가의 작품이 불법으로 압류되어 현재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 그당시 당국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미술회관 등 공공전시장의 사용을 신청단계에서 제재하고, 교직자들에 대하여는 공공연한 경고와 재임용 탈락을 위협하면서 미술단체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또 83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하는 주요 청년작가 초대전에서, 추천위원들에 의해 정당하게 초대된 작가를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는 사태도 벌어졌다. 그밖에 미술간행물의 압수, 만화작가에 대한 연행조사와 작품 몰수 등이 있었고, 전시 화랑등에 문공부가 공문을 보내어 전시대여 거절을 종용하는 사례를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성적·양성적, 직접·간접의 탄압이 누적되는 극점에 이르러 중국에는 「힘전 사태」라는 한국 미술 역사상 전대 미문의 사건으로 세상에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미술인들이 이와 같은 부당한 탄압속에서 받은 불이익과 피해는 일일이 여기에서 이루 열거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더우기 대학의 미술교육 현장에서 일부 교직자들이 당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미술운동과 민중미술을 공공연히 비방하고 왜곡되게 선전하여 새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의 참된 예술의욕을 꺾는 일은 우리 미술문화 발전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병폐로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미술인들은 민족 미술의 참된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부당한 탄압의 중지를 요구하면서 우리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우리의 의지를 더욱 확실히 하고자 연대 서명한다.

우리의 주장과 요구

1. 헌법에 명시된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찰기관에 의한 예술창작과 표현 자유에 대한 탄압은 이 땅의 민주발전을 위한 저해작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 예술가의 불법 구금 사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2. 수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용공성과 좌경화를 먼저 발표하고 매스컴을 통하여 왜곡된 비방을 일삼은 경찰과 매스컴은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해명하라.
3. 예술가의 작품을 「유언비어 유포죄」라는 범조문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석의 근거를 밝혀라.
4. 블랙 리스트를 공개하고, 공공미술관의 사용 기회 박탈과 공적인 미술행사 참여 방해를 즉각 중지하라.
5. 당국은 소위 문제작가의 작품을 국립현대미술관에 불법 압류한 법적 근거를 밝히고 이번 「힘」전에서 압류한 작품을 포함하여 모두를 즉각 반환하라.
6. 대학의 일부 미술교육자들은 새로운 미술 운동과 민중미술에 대한 자의적이고 왜곡된 비방을 중지하고 개방적인 자세에서 교육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7. 매스컴의 저질화된 편향보도와 여기에 편승한 일부 미술인들의 견해는 진정한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 또한 우회적인 강압에 의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1985년 7월 26일

원동석 외 235명 미술인

「현」展 출품작가들과 민중미술인들. 7월 22일. 10시. 10시. 10시.



중앙일보('85. 7. 22)



김봉준 「별 따세」

우란분제 행사 탄압, 걸개그림 탈취

때 : 1985년 8월 3일

곳 : 서울 개운사

1985년 8월 30일 화가 김봉준의 대형걸개 그림 1점(별따세)과 두령의 공동작품(통일염원도) 1점을 민중불교운동연합에서 주최하는 우란분제에 행사용으로 걸었으나, 당국은 이 집회자체를 탄

압하기로 하고 위의 두 작품을 불법 탈취하였다. '감로탱화' 등 전래하는 민속형식을 빌은 창작품을 불온한 집회에 게시되었다고 하여 탈취한 것은 미술과 대중집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6
병인년 달력

민족미술 열두마당

- 전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 민중불교운동연합
- 민중문화운동협의회
- 자유실천문인협의회
- 민주언론운동협의회
- 한국기독교노동선교협의회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 서울노동운동연합
- 한국가톨릭농민회
- 한국기독교총민회총연합회
- 민주화운동청년연합

- 대한가톨릭학생총연맹
- 명동천주교회청년단체연합회
- 전남사회운동협의회
-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
- 부산민주시민협의회
- 충남민주운동협의회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 민통련서울지부
- 민통련경북지부
- 민통련경남지부
- 민통련강원지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제작 : 민중문화운동협의회

「민족미술 열두마당」 압수

때 : 1985년 11월

민·통·련은 민족미술협회의 작가 12명의 그림으로 민족미술열두마당(달력)을 1985년에 10월 발행하였다. 그런데 당국은 11월 30일 이 달력그림을 불온작품으로 규정하여, 두번에 걸쳐

강제 압수하였다. 이 달력에는 화가 오윤, 신학철, 홍선웅, 황재형, 이철수, 홍성담, 김봉준, 문영태, 이종구, 박불동의 작품 각 1점, 그리고 시민미술학교작품 1점, 두령공동작품 1점 모두 12점이 실려 있었다.



통일도
오윤작
300 x 100
캔버스·아크릴
1985년

개똥같은 내일이야
꿈 아닌들 안 오리오마는
조개 속 보드라운 살 바늘에 찔린 듯한
상처에서 저도 몰래 남도 몰래 자라는
진주같은 꿈으로 잉태된 내일이야
꿈 아니곤 오는 법이 없네.

그러니 벗들이여!
보름달이 뜨거든 정화수 한 대접 떠 놓고
진주같은 꿈 한 자리 점지해줍시사고
천지신명께 빌지 않으려나!

벗들이여!
이런 꿈은 어떻겠오?

155 마일 휴전선을
헤뜨는 동해바다 쪽으로 거슬러 오르다가 오르다가
푸른 바다가 굽어보이는 산정에 다달아
국군의 피로 뒤범벅이 되었던 북녘 땅 한 삼
공산군의 살이 썩은 남녘 땅 한 삼씩 떠서
합장을 지내는 꿈,
그 무덤은 우리 5천만 순례의 순례지가 되겠지.

.....
.....



통일해원도
김봉준 작
70 x 40
목판·수채
1985년

.....
어기야디아
어기야디아
새세상 찾아 가세
병어리로 소경으로
귀머거리로 한 젊음
바람에 찌든 원한
뱃전에 배인 설움
개치 새 나무에
소금배 들어도 못 풀겠네

어기야디아
어기야디아
새세상 찾아 가세

물 위에 한 세월
구름 위에 한 세월
물억새나 휘젓는
들오리로 한 세월
잠 설치는 갈대밭
빈 바람이 되어 가세

.....



민족통일도
홍선웅 작
200 x 136
캔버스·아크릴
1984년

꺾대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꺾대기는 가라.
 꺾대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꺾대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꺾대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꺾대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기슭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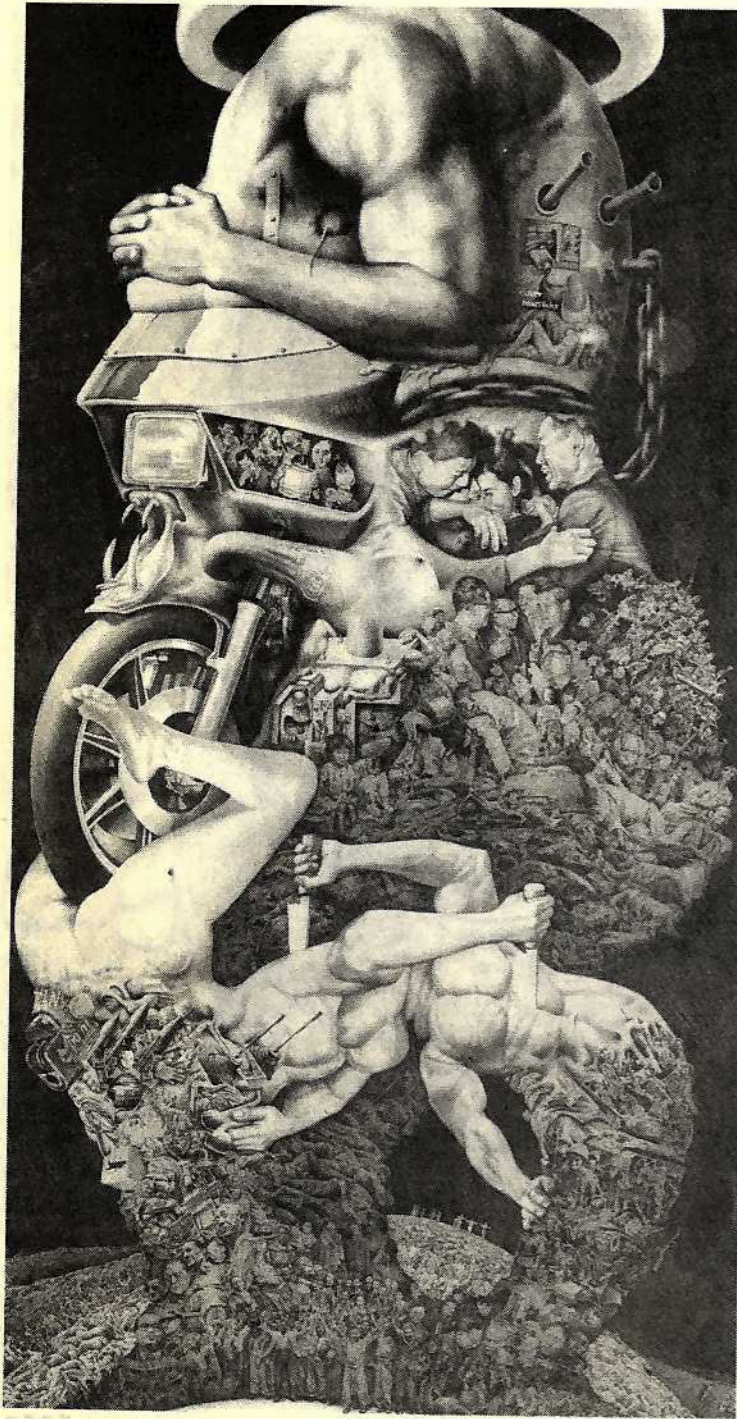


동학연작 중에서, 東軍들 떡을 사먹다.
이철수 1984년

동군들,
떡을 사먹다
이철수 작
114 x 28
고무판·수채
1984년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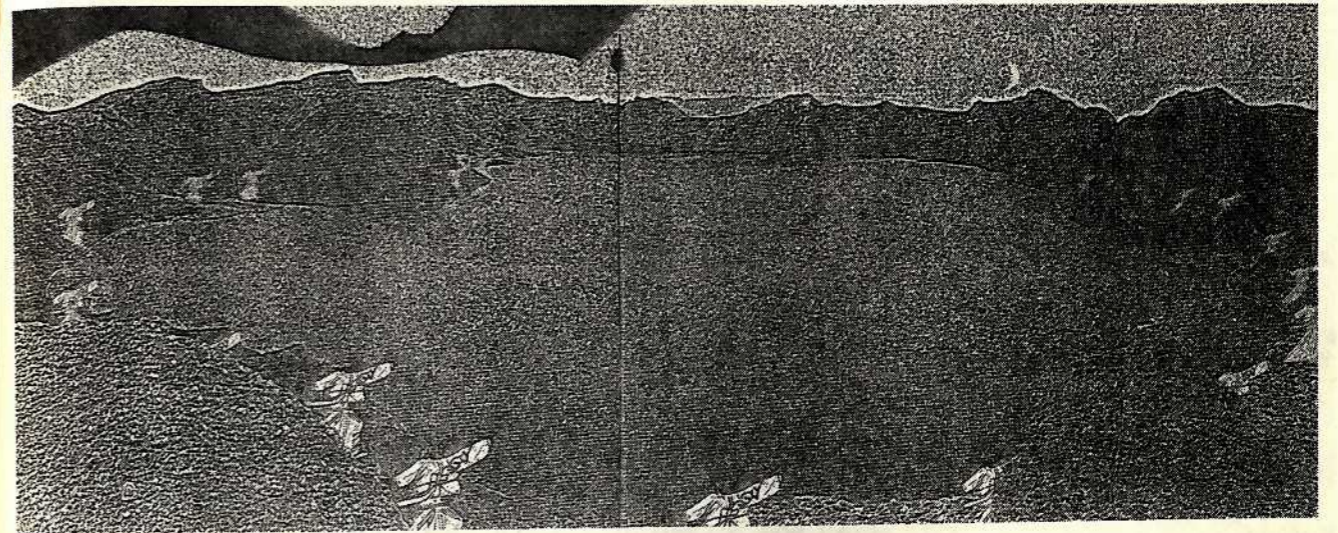
전라도라
 고부땅에
 논두렁에
 발두렁에
 썩았나듯
 풀았나듯
 푸룽푸룽
 솟아나네



한국근대사
신학철 작
260 x 130
캔버스·유채
1984년

.....
.....
아들이 아들이 다자란 내 아들이
사랑이 오고 생활이 오고
품에 안은 네 여자의 자궁처럼
진실이 추해 보이더라도
역사와 시대의 종말과
고통의 선례에 대해 수근대는
못난 늙은이들 껌속말에
너는 귀기울이지 말거라
네 몸이 겨울이 될지언정
네 팔이 흑풍에 마른 가지처럼
뚝뚝 부러질지언정

.....
아들이 아들이 끌려간 내 아들이
아들이 아들이 끌려간 내 아들이



문영태 작 아! 천지
72 x 28 콜라주·마스터 1985년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백두산 장군봉 상상봉
이로부터 하늘속의 땅이고 물이다
천지로다
천지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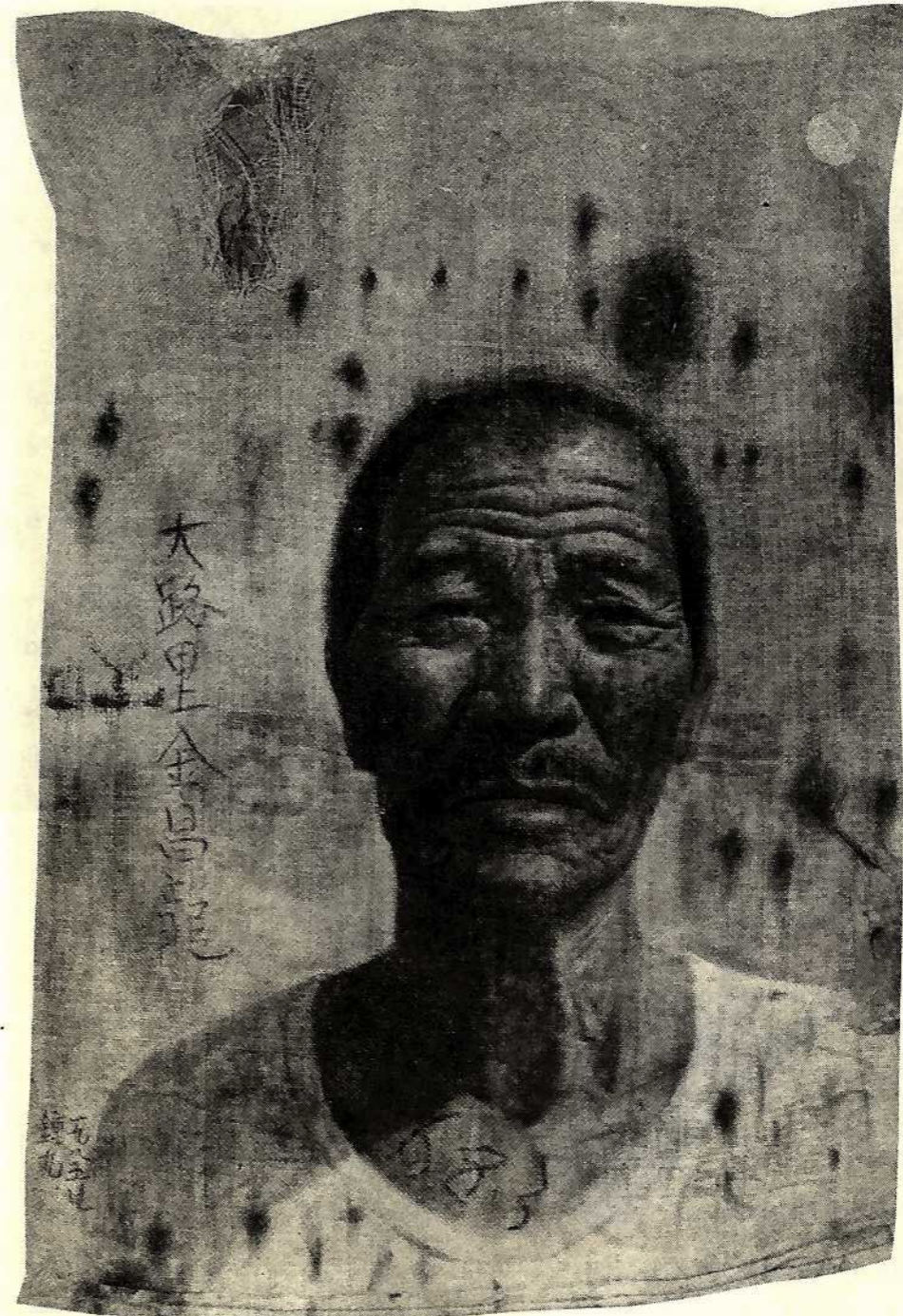
고구려 장부여 발해 총각들이여
남이장군이여
여기 와 무엇을 보았다 하는가
생각이 끊어지고
말도 끊어지고
보아라 아무리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보오 아버와 자식 하나 되어
이 거룩한 봉우리 하나하나 보오
눈으로 보지 말고
빈 가슴으로 새겨보오
천지 맑은 물 보오
천지에 내려온 하늘 고개 들어
그 하늘 우러러보오
여기가 조선의 정수리요 한복판이오
여기가 조선 삼라만상의 마루요 근본이오
여기가 조선땅 옛 땅의 터전이오
여기가 조선역사의 첫날이오
여기가 오늘이오 내일과 멀고 먼 날의 명운이오
울음도 끊어버리고 보오 보오
큰 백두 영봉을 보오



황재형 작 점심시간
117x90 캔버스·유채 1984년

아니다 탄식이 아니다
 쇧가루 쌓여 가는 폐질의 몸을
 끌고 가며 기다리는 죽음이 아니다
 노동이란 돈에 팔려
 쇧불이 되어 밥덩어리에 팔려
 타는 기다림 속에서 불게 익어가는
 불게 피어나는 노여움의 가슴을 파묻고
 아아 죽음으로 잊어버리고
 기계가 되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
 거둬 태어나는 것이다. 노동이란
 사슬의 두려움으로부터 굶주림의 추억으로부터
 일어나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람의 땅에 서는 것이다.



속·농자천하지대본
 이종구 작
 104x70
 싹부대·유채
 1985년

어머니,
 올해도 어머니 맘과 하늘의 마음은
 서로 잘 맞아
 곡식들이 이렇게 저렇게
 소담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콩 심으랴 할 때 고추 심고
 고추 심으랴 할 때 콩 심었으나
 어머니님은
 이제나 저제나 고추를 심으셨습니다.
 저렇게 보기도 좋은 곡식을
 자식들같이 가꾸어
 이렇게 먹기도 좋게 다듬어서
 누구 좋은 일만 시키고
 어머니, 어머니님은
 쪽정이나 벌레 먹은 것들을
 잠수시며 사셨습니다.
 잘 되면 잘 되어 걱정
 안 되면 안 되어 걱정으로
 고추가 저렇게
 불송이같이 이글거리는데
 어머니님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올해도 고춧금은 뚝금입니다.



박불동 작 외래어
50 x 35 플라스틱 1985년

이리칠 저리칠
바지아래 똥칠이요
두리 두리 강촌이라 대천봉
이런봉 저런봉
개미허리 잘록봉 강진너 무수봉
영화배우 도금봉 살인강도 고재봉
4.19 때 이기봉 그때 그사람 심수봉
두리 두리 강촌이라 대천봉

아메리카 방구는 초코렛트 방구 초코렛트 방구는 단 방구
쪽발이노 방구는 가다꾸라방구 가다꾸라 방구는 시금털털
우리나라 방구는 구호물자 방구 구호물자 방구는 배가 고파
배가 고파



통일염원도
두령 작
300 x 300
캔버스·아크릴
1986년

.....
.....
우리들의 사랑은
다시금
순환하는 계절의 저 눈발에
봄이 와서 붉게 피어날 진달래와
참호 속에 얼어붙은 젊은 기침과
돌이킬 수 없는 절망 속에 싹터
이렇게 북받쳐
너와 나의 가슴에 수련대는구나
오오 민주주의여, 내가 오기 전에
우리가 네게로 가야 한다.